

기금 5억 확보...숨돌린 광주문화재단

광주시 내년예산 확정 ... 이자수익 연 2억 뿐 대책 시급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성공 경기문화재단 벤치마킹 필요

광주시가 3년 만에 광주문화재단 기금을 지원하기로 해 부족한 기금 확충에 다소 속통이 트이게 됐다. 반면, 문화재단의 이자수익이 한 해 2억원에 불과해 체계적인 기금 활용 등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광주시 3년 만에 5억 지원=광주문화재단은 10일 “최근 광주시가 내년 예산안에 문화재단 기금 5억원을 포함시켰고, 이 예산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문화재단은 기금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조례에 따라 문화재단 적립 기금 목표액 500억원에 광주시의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재정 압박 등의 이유로 지난 3년간 기금 확충은 단 한 톨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적립금은 86억4100만원 뿐이다.

이에 광주문화재단은 매년 시 출연금을 통해 기금 200억원을 확충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 300억원을 자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에 내년 예산에 광주문화재단 기금 5억원을 반영해 기금 확충을 위한 첫 삽은 뜬 셈이다.

◇전국 문화재단 이자수익 쥐꼬리=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에서 공개된 전국의 문화재단 이자수익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문화재단의 한해 기금 이자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기금 자체가 충분하지 못해 이를 토대로 한 이자 수익도 적은 것이다.

기금이 86억여원인 광주문화재단의 경우 올 10월 기준 이자수익은 2억원에 불과했고, 전남문화예술재단도 5억원 뿐이었다. 비교적 기금 확보가 잘된 경기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이 각각 35억원, 32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을 뿐 대부분 문화재단이 2억~5억원 안팎의 이자 수익에 그쳤다.

기금 이자 수익으로는 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기문화재단의 성공 사례=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올 10월 현재 사업수입은 83억원에 달하고, 기타 수입도 32억원이다. 지자체 위탁사업비(60억원)와 국고(129억원) 지원보다 더 많은 115억의 수익을 올렸다.

여기에 이자수익 35억원을 더하면 자체

수입은 150억원에 달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더욱 탄탄해졌다.

비결은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었다. 우선 경기도박물관, 백남준미술관, 어린이박물관 등이 모여 있는 뮤지엄파크를 유료화했다. 무료로 이용됐던 이곳 주차장을 일반에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기업과 단체의 지원을 받는 ‘문화이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기부를 대폭 늘렸다. 올 하반기부터 메세나협회와 협약을 통해 기부 액수에 맞춰 추가로 메세나 협회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내놔다. 한 곳에서 1000만원을 기부받으면 메세나 협회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제도다.

이 밖에 산하 문화시설의 강당이나 노는 공간을 임대하거나 위탁사업수수로와 용역사업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처럼 광주문화재단 내부에서도 이에 광주시의 기금 지원뿐 아니라 현재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아예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들 기관의 운영 수익금을 재단 운영에 쓰는 게 무작정 기금만 확보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미술상에 박소빈 작가

‘용과 여인’ 소개

연필로 대형 화폭에 담아

연필 한 자루로 ‘용과 여인’이라는 소재를 대형 화폭에 담은 박소빈 작가가 ‘제20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했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위원장 우재길)는 지난 9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0회 광주미술상 수상자로 박 작가를 선정했다. 상금은 1000만원이다.

박 작가는 최종 후보 3명의 프리젠테이션 발표 후 열린 운영위원 40명의 무기명 투표에서 최다득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작가는 지난 2012년 ‘제

18회 광주미술상’ 공모에서는 차석상을 받았다. 올해 광주미술상 공모에는 모두 9명이 접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차석을 없애고, 대상 1명만을 선정해 미술상의 권위를 강화했다.

박 작가는 구례 화엄사에서 기동을 타고 오르는 용을 보고 이를 모티브로 한 작업을 시작했고, 영주 부석사 의상과 선묘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모태로 작품세계를 확장시켰다.

목포대 미술학과를 나와 조선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박 작가는 뉴욕 브루클린 보스 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중국 북경 포스 스튜디오에 입주해 창작활동을 했으며 중국, 독일, 미국, 유럽에서 전시했다.



박소빈

한편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지역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인예술야시장에서 ‘12월의 선물’ 사세요”

12·13일 오후 7시~12시

대인예술 시장이 12월에도 손님들 받는다.

광주시는 당초 11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대인예술야시장을 12~13일(오후 7시~밤 12시)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대인예술야시장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 열려 매일 1만여명이 찾는 등 인기를 모아왔다.

‘12월의 선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야시장은 대인시장 곳곳을 선물 가득한 공간으로 연출할 계획이다. 시장 명물인 ‘한평 갤러리’에서는 선물을 주제로 한 작가들의 작품이 내걸린다.

흥겨운 공연도 마련돼 있다. 타악그룹 ‘얼쑤’의 김놀이를 시작으로 타악 퍼포먼스, 아르코 앙상블의 전자바이올린 연주, 여성중창단 더 드림싱어즈, 관현악단 크리에티브 그룹 ‘배짱이’ 등이 성탄과 송년예 어울리는 흥겨운 난장을 펼친다.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앞치마공연단도 시장의 애환을 담은 노래와 율동을 선보인다. 대인 예술시장 작가들의 예술품 경매와 사진 전시회,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하는 외국음식 맛보기, 음악 공연 등도 볼거리다.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 블로그(http://blog.naver.com/byeol-jang), 문의 062-233-14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협, 맞벌이 가정·조손가정 손자녀양육서비스

8세 이하 18일까지 모집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대표 박영희)가 맞벌이 가정과 조손가정의 손자녀 양육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광주 여협은 ‘손자녀 돌보미 서비스 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

번 사업은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100% 이하 가정의 자녀,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조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로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

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로 제한되며 모집 인원은 187세대다.

신청 서류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서, 건강진단서, 지원신청서(다음 카페 광주여협, 광주시청, 구청 홈페이지) 등이다. 마감은 18일까지다. 문의 062-363-940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림을 전다

광주문화재단·주민들
양림동 역사·문화 담은
스토리북 발간

광주문화재단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양림동의 역사·문화자원을 집약한 스토리 북 ‘양림을 걷다’를 발간했다.

‘양림을 걷다’는 이곳 주민 등 11명의 탐험대가 지난 6월부터 스토리탐험대원으로 참여해 기존 문화자원은 물론 양림동의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한 주민주도형 사업 결과물을 담고 있다.

양림동 ‘길’을 테마로 각 길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공간과 장소성, 자연 생태와 토박이의 기억 등을 재구성했다.

각 길은 수피아동산길, 양림동산길, 사직공원길, 양림오거리길, 양림교회·제중원길로 구성됐다. 총 200쪽 분량인 책자는 양림동 곳곳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알려지지 않은 자원을 소개했다. 1963년 수피아

여고 학생들이 ‘낙우송’(일명 로렘나무)을 식재하며 20년 후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한다. 20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학생들은 실제로 1983년과 2003년 ‘로렘나무’에서 만났다.

스토리탐험대 대장으로 활동한 신장용 씨는 “책자에서 소개된 이야기들이 양림동을 대표하는 다양한 캐릭터상품, 예술작품, 문화콘텐츠로 승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062-670-74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월순 선교사 사택



수피아여고 로렘나무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